



# Esthetic approach in implant supported partial overdenture

손 차 영\*, 정 창 모, 전 영 찬, 임 장 섭, 정 희 찬 |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부분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치료는 screw-retained 또는 cement-retained bridge와 같은 고정성 보철물과 partial overdenture와 같은 가철성 보철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성 보철물은 착탈되지 않기 때문에, 보철물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으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또한 치조점막의 문제를 적게 유발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잔존 치조제의 소실이 심한 경우, 심미성이 나쁘고 발음에 문제를 일으키며 구강 위생 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교적 많은 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충분한 잔존골이 존재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가철성 보철물은 심리적 거부감과, 잔존치조제를 지지조직으로 이용할 경우, 잔존치조제의 흡수로 인한 재이장의 번거로움 등의 문제가 있지만 심한 치주염, 외상, 그리고 악성종양 등에 의해 과도하게 소실된 잔존치조제, 불량한 약간관계, 높은 심미적 욕구, 또는 발음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의 치료에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Overdenture 제작시 유지력과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ball and socket, magnetic 그리고 ERA와 같은 individual attachment를 이용하거나, bar attachment를 이용할 수 있다. Bar attachment는 individual attachment에 비해 손상율이 적고 임플란트간에 이차적인 splinting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bar를 milling 함으로써 부가적인 유지력과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

한편, implant-supported partial overdenture는 인공치와 partial overdenture의 labial flange를 이용하여 상실된 경조직과 연조직을 수복함으로써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 보다 심미적인 보철물의 제작이 가능하고, 발음상의 문제도 적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기성 인공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전치 결손부를 수복할 경우, 인접치아와 색조, 형태, 표면 질감 등의 심미적 조화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의치상제작에 사용되고 있는 의치상용 레진을 사용할 경우 색조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의 개별화된 특성을 살리는 보철물 제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미적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증례에서는, 전치부 결손을 포함한 잔존치조골의 심한 소실을 보이고, 심미적 욕구가 높은 환자에서, milled bar를 이용한 implant-supported partial overdenture 치료시, 기성 인공 레진치에 external staining을 실시하거나 기성 인공치대신 도재 금속관을 이용하고, 의치상용 레진에 internal staining을 처리함으로써 심미적인 치료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